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5-295호(2025.06.11 ~ 2025.08.31)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코리아채권 증권자투자신탁[채권]

2025년 05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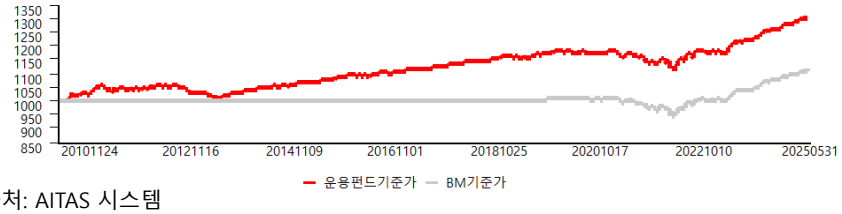
-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 듀레이션을 결정한 후,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율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

- 수익률 제고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추구를 위하여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 유니버스 내에서 신용도 개선이 예상되거나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 또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14%	0.93%	1.92%	6.22%	10.39%	13.79%	10.60%	30.02%
클래스 C	-0.18%	0.80%	1.67%	5.70%	9.31%	12.13%	7.92%	15.82%
클래스 C-E	-0.17%	0.84%	1.75%	5.86%	9.64%	12.63%	8.73%	14.34%
벤치마크	-0.11%	1.02%	2.01%	6.21%	10.87%	13.79%	10.14%	10.94%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4억 원

-퇴직연금코리아증권모1[채권] 955억 원

펀드유형 채권형, 모자형, 종류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 모투자신탁 채권편입비: 70% 이상(단, 국공채에서의 투자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10년 11월 24일)

- 클래스 C : 2017년 02월 28일
- 클래스 C-E : 2017년 08월 22일

벤치마크 매경BP종합(국공채) 6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30% + Call 1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3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4영업일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5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채권 종류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5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채권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국고03875-2612(23-10)	17.5	국고02375-2703(22-1)	5.3
아이비케이캐피탈302-5	7.5	롯데카드480-3	4.3
국고03750-3312(13-8)	5.7	국고01875-2606(16-3)	4.2
경기주택도시공사22-12-53	5.3	국고채권01375-3006(20-4)	4.0
JB 우리캐피탈530-4	5.3	롯데캐피탈462-2	3.3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코리아채권 증권자투자신탁[채권]

2025년 05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0.4925% (판매 0.3%)
- 클래스 C-E : 총 연 0.3425% (판매 0.15%)

(공통사항)

운용 0.16%, 신탁 0.02%,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5월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기대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약화 속에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 흐름이 이어지며, 국고채 금리는 상승 반전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는 미 연준의 신중한 스탠스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었고, 미-영 통상 합의로 관세 완화 기대도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감세안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는 시장 약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시작으로 재정 확대 기대가 부각되었습니다.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으나, 시장은 이미 이를 선반영한 상태였습니다. 금통위 이후 시장은 기준금리 2.0~2.25% 구간을 하단으로 인식하고, 대선 이후 추가 추경 가능성을 부담 요인으로 반영하며 약세가 심화되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 대비 6.3bp 상승한 2.335%, 10년물은 20.2bp 상승한 2.772%로 마감하였습니다. 펀드 듀레이션은 평가 기간 중 BM대비 101% ~ 105% 수준에서 운용하였으며, 월 중 시장금리 상승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BM 대비 확대 운용한 듀레이션 전략은 BM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월 중 확대된 가운데 10년이상 초장기 구간이 BM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였으며, 크레딧의 경우 스프레드 축소된 여전채 섹터 O/W 전략은 BM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종목 효과의 경우 국고채 30년 비지표 종목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6월 금리는 ① 미국 관세 정책 변화 ② 6월 FOMC 연준 스탠스 ③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및 국채 물량 부담 등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연준은 명확한 인하 시그널 없이 신중한 기조를 유지 중입니다. QT 중단 기대는 유효하나, 인하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한국은행의 완화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연준의 속도 조절은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에도 부담 요인이 됩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추경 규모 및 시기, 미 관세 협상 전개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는 대선 이후 재정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추가 추경 및 예산안 발표 전후로 수급 부담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 부담 이슈가 지속되어 수급상 약세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6월 금리는 완화정책 기대가 하단을 지지하고, 수급 및 대외 요인이 상단을 제한하는 구조 속에서 등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3년 2.20~2.45% 전망, 국고10년 2.65~2.95% 전망하며, 듀레이션은 중립 수준 운용하고, 변동성으로 금리 레인지 상단 접근 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는 이전보다 약화된 상황이며, 시장은 수급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감세안 통과로 인한 재정적자 우려로 텀 프리미엄이 확대되었고, 일본·영국·독일도 감세안 및 재정 확대 전망이 부각되면서 초장기 국채 금리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커브 상단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관련 정책의 후퇴나 수급 조치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역시 대선 이후 추가 추경 우려와 내년 예산안 발표에 따른 수급 부담이 장기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월 커브는 금리 인하 기대 약화, 글로벌 재정 리스크 부각, 국내 수급 부담 등으로 스티프닝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월 국고채 발행계획 상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기물 발행은 확대되고 초장기물은 유지될 예정으로, 이는 커브 스티프닝 압력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고 10-3년 스프레드 30~55bp, 국고 30-10년 스프레드 -20~0bp 전망하며, 커브 스티프닝 압력이 우세한 가운데 박스권 매매로 대응할 계획이나, 밴드 이탈 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크레딧 시장에서 여전채와 회사채는 여전히 캐리 메리트가 유효하여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기말 자금 이탈 우려는 스프레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채권형 자금 유입과 레포펀드 중심의 매수세가 크레딧 시장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행시장 역시 펀더멘털이 양호한 기업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며, 섹터 및 개별업체 간 차별화, 정기평정 이슈 등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크레딧 시장은 여전채·회사채 상위등급을 중심으로 강보합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국고 3y Spread 15~25bp, 은행/국고 3y Spread 20~30bp, 회사AA-/국고 3y Spread 50~60bp 전망하며, 선별된 종목 위주로 BM대비 확대 운용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